

[서평 2(한국어)]

한용진 저 『근대이후 일본의 교육』(도서출판 문, 2010)



일본대지진에 이어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연일 매스컴을 시끄럽게 하는 뉴스는 우리사회에 있어 지일(知日),극일(克日), 파일(和日)을 실현하여 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가치를 축소시키는 듯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용진 저 『근대 이후 일본의 교육』은 주로 교육에 관련되어 논의되었지만 불안적이고 다양한 일본인식의 계기를 주는 양서이다.

본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적으로 제1부는 메이지유신이후, 일본의 교육근대화의 초석이 된 교육사상을 정리하였다. 제2부는 전후, 미군정기를 통하여 현대일본교육의 근간들이 만들어진 과정과 성과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제2부의 후반에서는 일본 독자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현대교육의

사례들(교원선발과정, 일관교육), 더 나아가 근년의 교육개혁동향(국공립대학의 법인화, 교육개혁의 보수화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일본의 교육과 관련된 두 권의 책에 대한 서평과 교육기본법 및 대학일람 등의 자료를 담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구성으로 전개된 내용이지만 본서의 가장 독자적 특징은 한국교육인식에 연관된 일본의 근대교육인식과 전개의 맥락일 것이다. 독자들은 일본의 근대교육의 형성과정이 한국교육에 파급된 절묘한 연속성과, 식민지교육인식에 압도되어 한국교육사에 관계되었지만 미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지식에 대한 단절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제기하고 싶다.

첫째로는 문명주의자들과 일본의 기독교 지식인들이 근대교육관의 형성에 미친 영향력의 측면이다. 본서의 제1부는 일본의 한국교육인식에 근거하여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의 교육을 재인식하고 있다. 저자는 메이지기 이후 출간된 잡지들에 기고된 지식인, 지도자들의 논고를 근거로 하여 그들의 근대교육관형성과 한국교육인식을 설명하였다. 저자가 주목한 인물들은 대부분이 서양문명과 기독교를 접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교육국가주의, 문명주의, 보은교육사상에 입각하여 조선의 발전을 염원하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면, 문명주의 교육관에 관하여 저자가 주목한 것은 탈아론(脫亞論)을 주장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아니라 동서문명을 평등주의시각에서 인식한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오쿠마(大隈)의 교육관이 당시의 기독교계지식인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문명주의, 보은교육(報恩教育)사상과 상통함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의 기독교지식인단체가 한국교육에 있어 유력한 지원단체가 되어 있다는 면에서 이러한 교육관은 한국교육인식 및 전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쿠마(大隈) 자신도 한국을 스승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기독교계 잡지 『신인(新人)』은 사실을 통하여 일본문화의 연원이 조선인의 은혜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고문정치기의 학정참여관으로서 파견된 시데하라(幣原)는 한국을 ‘문(文)의 나라’ 라고 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식민주의나 동화주의와 다른 ‘교육주의’를 제기하고 ‘점진적이지만 한국인의 독립자연을 위하여 근본적인 인심과 지식전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으로서 설명하였다.

둘째로는 이러한 문명주의 교육관에 근거한 한국교육인식을 가진 지식인들의 소속 단체를 통하여 한국에서 정착한 구체적인 교육의 양태를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자는 대일본해외교육회(大日本海外教育會)의 활약에 주목하였다.

1894년 조선에 교육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독교선교단체인 대일본해외교육회에 대하여 저자는 잡지 『교육시론(教育詩論)』의 자료를 통하여, 단체설립의 목적이 포교가 아니라 쇄미한 조선국민의 구제에 있음을 말한다. 기독교신자 유력자들이 발족하고 1899년 와세다 대학의 설립자이며 수상을 역임한 오쿠마가 회장직을 맡으며 정치적 세력으로 변질되어 갔지만 대일본해외교육회의 사업(특히 경성학당의 설립과 지원)이 한국통감 이토히로부미로(伊藤博文)부터 가장 높이 평가되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 나아가 저자가 제5장에서 소개한 경성학당의 실태를 보아도 1899년에서 1906년까지 약 2000명의 학생들이 경성학당을 거쳐 사회진출을 한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이 단체와 한국교육 인식과의 관계적 맥락은 결코 쉽게 간과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실태로부터 저자는 한국교육사에 있어서 개화기 미국선교단체의 교육활동 뿐 만 아니라 일본기독교선교단체의 활동에도 주목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셋째로, 본서는 전후 미군정기를 통하여 기반이 다져진 전후교육형성과정의 고찰의 특징이다. 저자는 전후교육개혁기의 성과와 현대교육과의 연속성을 제기하고 동시에 미군정에서도 일본 독자의 교육을 만들어내는 자주적 잔상과 그 의미를 제기하였다. 저자는 미국교육사절단의 보고서, 교육척어를 대신한 교육기본법의 제정과정과 내용, 그리고 미군정에 의하여 조직되어 교육개혁을 촉진한 일본교육가위원회, 교육쇄신위원회를 상세하게 고찰함으로써 민주주의교육이념을 토대로 한 전면적인 교육개혁이 일본에서 체계화되는 과정에 관련된 지식을 풍부히 하여 전후교육의 기반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목적을 「인격의 완성」에 두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주변 배치한 것에 착안하여 미군정의 교육개혁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요컨대, 전후의 일본의 교육개혁과 교육기본법제정이 평화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의 기반 위에 그 중핵적인 가치로서의 개인의 존엄을 강조한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미국교육을 대신하여 공동체적 도덕성을 강조한 일본교육의 기존양식을 유지하려는 자주적 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안적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본서는 개화기로부터 현대의 일본교육을 망라하는 자료와 심도있는 고찰로 풍부한 인식의 심화와 전환을 촉발하는 재미있는 책이다. 특히 일본의 근대교육사상의 흐름을 인식을 하는데 있어 교육을 식민지 지배의 수단으로서 전락시킨 인식과는 다른 차원의 한국교육인식이 일본의 교육근대화의 과정에서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은 본서의 귀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식민시대의 한국교육을 새롭게 조명하여 볼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역사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장지은 (국민대학교 문과대학 교육학과 초빙교수)

[書評 2(日本語)]

韓龍震著 『近代以後日本の教育』(図書出版門 2010)



日本大地震につづく孤島問題、歴史教科書問題などで絶えずマスコミを騒がせるニュースは社会における知日、克日、和日を実現していくに必要な知識と情報そして価値を狭めつつあるようである。こうしたなか、読んだ『近代以降日本の教育』は主に教育に限られている論議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複眼的で多様な日本認識を持たせる契機を与えた良書である。

本書は3部から構成している。内容的に第1部は明治維新以降日本の教育の近代化における礎石となっている指導者たちの教育思想を整理した。第2部は、戦後アメリカ軍政期、現代日本教育の根幹が作られた過程と成果を叙述している。さらに第2部の後半では日本独自のシステムを作っている現代日本教育

の事例(教員選抜過程、一貫教育)を紹介し、さらに近年の教育改革動向(国公立大学の法人化、教育改革の保守化論争)の整理までを含んでいる。そして第3部では、日本の教育関連の二冊の本についての書評と教育基本法及び大学一覧などの資料を載せている。

上のような多様な構成から展開した内容であるが本書の一番目立つ特徴は韓国教育につながる日本の近代教育認識と展開の脈絡であろう。読者に日本の近代教育の形成過程が韓国におよぼす微妙な連続性と、植民地教育認識に圧倒され韓国教育史に関連しているのにも認知してこなかった知識との断絶性を共感せざるを得ないであろう。具体的には次の三点においてである。

第一に、文明主義者、日本のキリスト系知識人たちが近代教育観の形成に及ぼした影響力である。本書の第一部では日本の韓国教育認識に基づき開化期および植民時代の教育を再認識する。著者は明治期以後に出版された雑誌に寄稿した知識人、指導者の文を根拠にして彼らの近代教育観と韓国教育認識を説明している。著者が注目した人物はほとんど西洋文明とキリスト教を接した経験があり教育国家主義、文明主義、報恩教育に立脚し朝鮮の発展を切実に願ったという共通点がある。

たとえば、文明主義教育について著者が注目したのは脱亜論を主張した福澤 諭吉ではなく東西文明を平等主義的な観点で認識した大隈 重信である。さらにこうした大隈の思想が当時のキリスト教知識人に共有されている文明主義、報恩教育に通じることを示してい

る。これは当時のキリスト教系教育団体が韓国教育支援において有力者となっているという面で韓国教育認識および展開と関係ないと言えないであろう。大隈自信も韓国を師範の国として表現しており

キリスト系雑誌『新人』は社説を通して日本の文化の源が朝鮮人の恵みにあるところを語っており、顧問政治期に学政参与管として赴任した幣原垣は韓国を指し、文の国と命名している。著者はこうした資料を土台にして植民地主義や同化主義とは異なる次元の『教育主義』を提起し、漸次的であるが韓国の独立自営のために根本的な人心や知識専門教育を志向する教育'として区別し説明している。

第二に、こうした文明主義に基づき韓国教育認識を形成した知識人が所属した団体を通して韓国に定着してきた教育の様態についてである。代表的に著者は大日本海外教育会に注目している。

著者は、1894年、朝鮮における教育事業を展開するために組織された宣教団体大日本海外教育会に対して『教育詩論』の資料を手がかりにして団体の設立目的が布教ではなく衰弱している朝鮮国民の救済にあったことを語る。キリスト教系有力者たちが発足し1899年早稲田大学の設立者であり首相を歴任した大隈が会長役を受け持つことにより政治的組織に変質した面もあるがこの団体の事業や活動としての京成学堂の設立と支援は、当時韓国統監伊藤博文から一番高く評価した面からも注目すべきである。さらに著者が第5章で紹介した京成学堂の実態をみても1899年から1906年の8年間2000名の学生が京成学堂にて習い社会進出することがわかりこの団体と韓国教育認識の关系的脈絡は看過でき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こうした実態から著者は韓国近代教育史においてアメリカ宣教団体の教育活動のみならず日本キリスト教団体活動も注目すべきことを提起している。

第三に、戦後アメリカ軍政期に整えられた戦後の教育形成過程の考察の意味である。著者は戦後改革期の成果と現代教育との連続性を提起し同時にアメリカ軍政の統制の下でも日本の独自の教育を作ろうとした自主的残像の意味を語る。要するに著者はアメリカ教育使節団の報告書、教育勅語に代わる教育基本法の制定過程と内容、アメリカ軍政の影響のもとで組織され教育改革を促した日本教育家委員会、教育刷新委員会の活動を考察し民主主義理念を土台にした全面的な教育改革が日本で体系化していく過程における理解を深める豊富な資料を整理した。

それにも関わらず、著者は教育基本法が教育の目的を『人格の完成』におきそのほかの事項を周辺配置したことに着眼しながら戦後の教育改革が平和主義と民主主義の理念の基盤の上、個人の尊厳と価値を極める改革を目指そうとしたアメリカ軍政の影響のもとであったが結果的には個人主義的なアメリカ教育より共同体的道徳性を強調した日本教育の既存様式を維持しようとした自主的努力が並行したはず可能性を排除出来ない複眼的な観点を提起したのである。

本書は開化期から現代までの日本教育を網羅した豊富な資料の検討と深い考察にて日本認識の拡大と喚起を触発した面白い本である。特に日本の近代教育思想の流れでは、教

育を植民地支配のための手段として転落させた認識とは異なる次元の韓国教育認識が明らかに形成していた点を明らかにし植民時代の韓国教育を新たに照明する必要性と手がかりを提供している。日本および歴史に関心を持っているすべての人にお薦めしたい。

張智恩(国民大学校文科大学教育学科招聘教授)